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4. 20 ~ 4. 26

전남농업정보

30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수급 동향

일반토마토·딸기 가격 및 출하 동향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채, 축산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담양군 자체개발 '죽향딸기' 홍콩 첫 수출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유기농 기반 구축 위해 새끼우렁이 농법 확대

정책동향

전남 6곳 농촌마을축제 지원사업 선정

해외 농업정보

중국, 3월 대두수입량 2월대비 5.4% 증가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3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5%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5,400원이었고 반입량은 작년보다 3% 적은 3,300톤 수준이었으며 3월 딸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4,400원으로 작년(1만 4,100원)과 비슷한 수준
- 농산물 저장량 증가에 햇물량 맞물려...홍수 출하 우려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 채 : 일반토마토, 딸기

- 일반토마토 : 일반토마토 4월 가격은 출하량 많아 작년보다 낮은 상품 5kg에 1만 2천~1만 4천원 전망
- 딸 기 : 4월 딸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1만 1천~1만 3천원 전망

▶ 축산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4,000~16,000원/kg 전망

- 돼 지 :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심리 위축, AI 대체효과 축소로
4월 돼지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인 4,500~4,700원/
kg 전망

▶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11,07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781원/kg(전년 655원 대비 19%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9%인 6,892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460원/kg(전년 2,740원 대비 26% ↑)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라남도, 광남일보)

- ▶ 담양군 자체개발 '죽향딸기' 홍콩 첫 수출
- ▶ 전남産 농수산물 중국시장 진출 확대
- ▶ FTA 대응 농림축산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한다
- ▶ 보성군, 강산농원 '천년초 발효음료' 중국수출 상차식 실시
- ▶ “해외 외식기업 매장 7000개, 진출국 50개국으로 다변화”
- ▶ 미국산 고급 쇠고기 수입 증가…한우시장 잠식 우려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유기농 기반 구축 위해 새끼우렁이 농법 확대
- ▶ 전남농기원, 마늘·대파 냉동 편의제품화로 소비촉진 앞장
- ▶ 쌀 생산비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보급 확대
- ▶ 매실 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 방제

❁ 정책동향(전라남도)

- ▶ 전남 6곳 농촌마을축제 지원사업 선정
- ▶ 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102억 우선 지원
- ▶ 고길호 군수 “1조7168억 투자 ‘살맛나는 농촌’ 만들터”
- ▶ 전남도, 간부공직자 1일 농부돼 농업인과 소통
- ▶ 이 지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살펴
- ▶ 농부장터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사세요
- ▶ 농업 6차산업 육성 ‘올인’...4년간 500억 투입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중국, 3월 대두수입량 2월대비 5.4%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미국 건조한 밀지역의 시기적절한 소나기 전망에 따른 잠재적 수확손실 우려완화로 근 2주래 최저치로 급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가격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 및 파종이 시작된 중서부지역의 강우로 하락
 -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의 수확진전에 따른 세계대두 재고량 증가로 약보합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광남일보, 남도일보)

- ▶ 전남 유기농 선도 농가를 찾아서 - 순천 김태현 유기농명인
- ▶ 순천만 천년초 오기조 대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기간 : 4. 20. ~ 6. 5.
- 가입대상 : 벼 재배면적이 4,000m²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상재해 : 태풍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
- 청약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 신청기간 : 4. 15 ~ 4. 30.(2주간)
- 대 상 :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고 가축운동장을 확보한 농가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증빙자료, 농장사진 등) 시군 제출

▶ '15년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4. 13. ~ 4. 27.(2주간)
- 신청자격 : 한우사업단, 육종개량농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국비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사육시설, 퇴비장시설,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15년 축산계열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4. 13. ~ 5. 1.(3주간)
- 사업대상 : 21개소(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 사 업 비 : 15,919백만원(축산경영종합자금)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등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4. 2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20)	전주 (4/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00	43,325	41,406	↓ 5.8	↓ 1.5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6,000	142,000	187,833	↓ 4.2	↓ 27.6
	고구마(밤)	10kg	28,200	28,800	28,240	19,800	25,147	↑ 42.4	↑ 12.1
	감자(수미)	20kg	45,600	38,600	35,120	19,450	24,393	↑ 134.4	↑ 86.9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480	480	500	360	1,042	↑ 33.3	↓ 53.9
	양배추	10kg	5,800	6,000	6,100	3,800	5,265	↑ 52.6	↑ 10.2
	오이(다다기계통)	15kg	36,000	44,000	38,000	27,500	34,079	↑ 30.9	↑ 5.6
	애호박	8kg	19,400	24,200	22,360	16,350	15,227	↑ 18.7	↑ 27.4
	토마토	10kg	33,600	34,000	30,680	32,750	33,015	↑ 2.6	↑ 1.8
	무(월동)	1kg	470	510	488	493	495	↓ 4.7	↓ 5.1
	당근	20kg	23,200	22,200	20,880	24,800	28,440	↓ 6.5	↓ 18.4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5,000	799,000	↑ 27.1	↑ 2.6
	풋고추	10kg	54,600	52,600	69,360	54,600	42,417	-	↑ 28.7
	마늘(난지)	10kg	35,000	34,600	35,200	27,400	38,027	↑ 27.7	↓ 8.0
	양파	1kg	710	710	652	631	931	↑ 12.5	↓ 23.7
	대파	1kg	1,570	1,570	1,510	1,020	1,521	↑ 53.9	↑ 3.2
	파프리카	5kg	25,000	25,200	27,160	26,950	31,627	↓ 7.2	↓ 21.0
	방울토마토	5kg	23,800	22,200	18,480	24,300	23,687	↓ 2.1	↑ 0.5
	딸기	1kg	8,400	8,600	8,680	7,600	7,335	↑ 10.5	↑ 14.5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800	63,800	62,400	83,800	77,133	↓ 23.9	↓ 17.3
	배(신고)	15kg	40,800	39,200	39,800	45,200	44,511	↓ 9.7	↓ 8.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20)	전주 (4/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4,000	528,000	534,000	570,178	↓ 0.4	↓ 6.7
	들깨	45kg	420,000	428,000	426,000	450,000	377,467	↓ 6.7	↑ 11.3
	새송이버섯	2kg	8,600	8,200	8,640	8,200	8,635	↑ 4.9	↓ 0.4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330	6,410	6,486	5,957	5,700	↑ 6.3	↑ 11.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58	1,888	1,888	1,933	1,723	↓ 3.9	↑ 7.8
	닭고기	1kg	5,299	5,291	5,575	6,473	6,128	↓ 18.1	↓ 13.5
	계란(특란)	10개	1,978	1,952	1,968	1,984	1,877	↓ 0.3	↑ 5.4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93	↑ 0.2	↑ 11.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4. 20.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570 천원	4,787 천원	4,033 천원	↓ 4.5	↑ 13.3
	거세	5,537 "	5,471 "	5,412 "	↑ 1.2	↑ 2.3
송아지 (6~7월)	암	2,217 "	2,159 "	1,595 "	↑ 2.7	↑ 39.0
	수	2,597 "	2,606 "	2,359 "	↓ 0.3	↑ 10.1
육우(600Kg)		3,735 "	3,597 "	2,679 "	↑ 3.8	↑ 39.4
젖소수송아지(7일령)		126 "	126 "	16 "	-	↑ 687.5
돼지(110kg)		381 "	393 "	376 "	↓ 3.1	↑ 1.3
육계(원/kg)		1,725 원	1,726 원	2,007 원	↓ 0.1	↓ 14.1
계란(원/특란10개)		1,351 원	1,351 원	1,349 원	-	↑ 0.1
오리(원/kg)		2,333 원	2,500 원	3,167 원	↓ 6.7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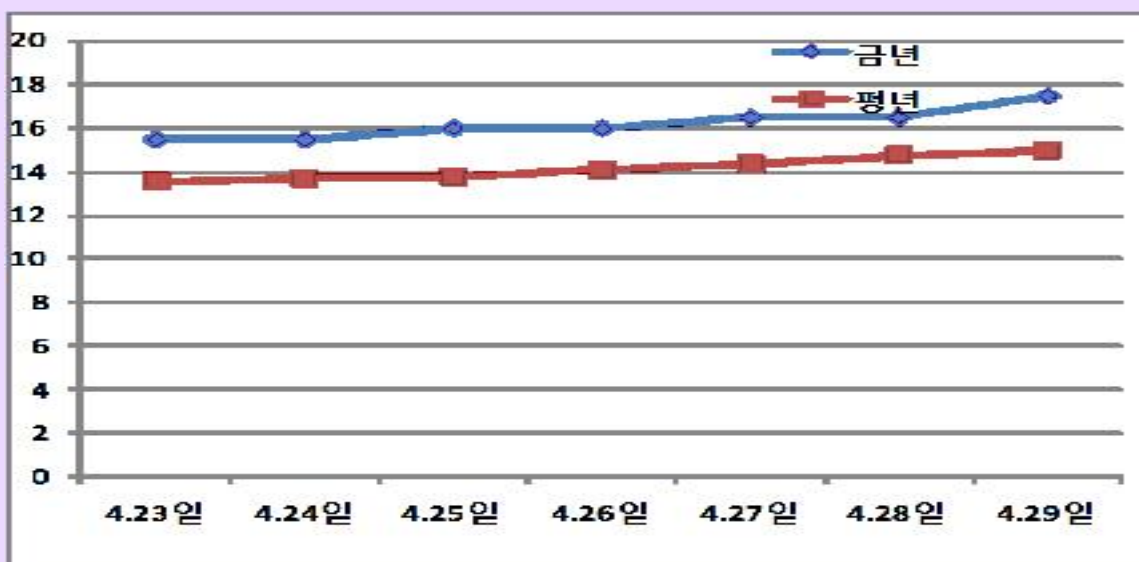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6.2	14.2	2.0	21.1	19.6	1.6	11.3	9.9	0.9	2.1
4. 23.(목)	15.5	13.6	1.9	21	19.1	1.9	10	9.5	-0.5	2.2
4. 24.(금)	15.5	13.7	1.8	21	19.1	1.9	10	9.4	-0.6	2.2
4. 25.(토)	16	13.8	2.2	22	19.3	2.7	10	9.4	-0.6	1.7
4. 26.(일)	16	14.1	1.9	20	19.5	0.5	12	9.7	2.3	1.7
4. 27.(월)	16.5	14.4	2.1	21	19.8	1.2	12	10.1	1.9	2.4
4. 28.(화)	16.5	14.8	1.7	21	20.1	0.9	12	10.5	1.5	2.4
4. 29.(수)	17.5	15	2.5	22	20.2	1.8	13	10.8	2.2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축산물 수급 동향

일반토마토 · 딸기 가격 및 출하 동향

□ 가격 동향

- 3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작년보다 25%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5,400원이었고, 반입량은 작년보다 3% 적은 3,300톤 수준이었다. 일반토마토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량이 적었던 것은 생육초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3월 상순까지 출하지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순 이후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반입량이 다시 증가하자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 3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4,400원(중품 1만 500원)으로 작년(1만 4,10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출하 동향

- 4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전년 엽채류 가격이 낮아 토마토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아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부여에서도 일반토마토 정식이 늘어 4월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단수는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에서 기상여건 호조로 토마토 작황이 좋아 단수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4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 4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경남 밀양, 경북 고령에서 딸기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정식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충남 논산에서는 신규 시설면적 확대로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월 단수는 기상호조와 수량성이 높은 고설식 재배면적 확대로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저장량 증가에 햇물량 맞물려...홍수 출하 우려

- 지난해 낮은값에 저장 늘고 기간 길어지면서 품위까지 저하 -
- 사과·배 과일은 물론 양파·감자·배추 등 비상...분산출하 시급 -
- ‘사과와 배, 양파와 감자, 그리고 배추...’ 이들 품목의 공통분모는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올해는 하나를 더하고 있다. 4월 중순을 넘어가며 경쟁품목 및 해당품목의 햇물량 출하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저장물량이 막판으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저장품목의 홍수 출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 산지 농가 및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물량은 어느 해보다 늘었다. 작황호조로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농산물 시세는 끝도 없이 추락하면서 수확 후 바로 출하하기보다는 저장으로 물량을 돌린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세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4월 중순 현재까지도 출하하지 않고 저장 상태로 비축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사과와 배 등 과일은 물론 양파와 배추 등 다수 품목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사과와 배는 지난 추석 이후 이어지던 낮은 시세흐름이 기대했던 설 대목에도 반등하지 못했고, 설 대목 이후 현재까지도 저시세가 계속됐다. 사과와 배는 산지 농가보다는 중간수집상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전언이다.
- 배추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낮은 시세에다, 올해 봄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시세가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풀지 않는 저장물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양파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장기간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남 무안의 저장양파와 제주의 햇양파가 시장에 동시에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는 저장양파가 시장에 출하될 것이라고 시장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 저장물량이 많고, 또 저장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장기간이 길어지고 날씨까지 풀리면서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햇물량 출하가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가운데 저장물량이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가뜰이나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래저래 지난해 초유의 낮은 농산물 시세에 대한 여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분산출하 및 유통과정에서 품위 보존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 김영권 가락시장 동부팜청과 경매차장은 “지난해 대다수 농산물이 전체적인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반해 시세가 없어

저장으로 몰린 양이 많았다”며 “저장 이후에도 시세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저장물량이 평년보다 길게 시장에 출하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때일수록 상품과 하품의 시세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시세 하락 폭도 더 커진다”며 “분산출하를 유도해야 하고 특히 저장물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지고 날씨도 풀려 유통·출하과정에서 무름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15. 4. 17.)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 채 : 일반토마토, 딸기

○ (일반토마토)

- 일반토마토 4월 가격은 출하량 많아 작년보다 낮은 상품 5kg에 1만 2천~1만 4천원 전망

○ (딸 기)

- 4월 딸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1만 1천~1만 3천원 전망

축 산 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4,000~16,000원/kg 전망

○ (돼 지)

-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심리 위축, AI 대체효과 축소로 4월 돼지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인 4,500~4,7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 : 11,077ha(전년대비 8% 감, 평년대비 1% 증) - 전국의 51%
 - 조생종 2,137(19%), 중만생종 8,940(81%)
- 발매기 거래 : 8~11천 원/3.3m²(전년 5~6천 원/3.3m²)
 - 거래실적(조생종) : 무안 92%, 고흥 93% * 전년도 거래실적 20~30%
- 출하동향 : 고흥 3%, 무안 1%(하우스) 출하
 - 조생종 본격출하 시기 : 고흥(4. 18 ~ 5. 5), 무안(4. 27 ~ 5. 10)
- 도매시장 가격('15.4.14.현재, 상품기준)
 - 양파 : 781원/kg(전년 655원 대비 19% ↑ 평년 710원 대비 10% ↑)

○ (마 늘)

- 재배면적 : 6,892ha(전년대비 7% 감, 평년대비 13% 감) - 전국의 29%
 - 남도 5,355(78%), 대서 1,344(19%), 기타 193(3%)
- 발매기 거래 : 11~12천원/3.3m²(전년 7~8천원/3.3m²)
 - 거래실적 : 고흥 70%, 해남 60%, 신안 65% * 전년도 거래실적 35~40%
- 도매시장 가격('15.4.14.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460원/kg(전년 2,740원 대비 26% ↑ 평년 3,500원 대비 1% ↓)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담양군 자체개발 '죽향딸기' 홍콩 첫 수출

- kg당 1만5000원 300kg 선적 -
- 5월까지 매주 300kg씩 수출 -
- 전국의 딸기 3대 주산지인 담양군에서 자체개발한 신품종 '죽향 딸기'가 홍콩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첫 수출길에 올랐다.
- 담양 '죽향딸기' 홍콩 항공선적 행사가 지난 9일 창평농협 딸기선별장에서 열렸다.
- 이날 항공 선적된 죽향딸기는 총 300kg으로 1kg당 1만5000원의 높은 수출단가를 받았다. 앞으로 5월말까지 매주 300kg씩 수출될 예정이다.
- 죽향딸기는 담양군에서 역점시책으로 7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신품종이다. 이를 통해 일본 딸기품종 사용료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딸기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또한 경도(硬度=단단함)가 높아 저장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당도 또한 11.2 브릭스(당도 단위) 이상으로 높고 향기가 좋아 소비자를 매료시키기 충분해 수출용 고품질 딸기로 적합한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군은 지난 2012년에 국립 종자원 품종보호 출원을 마쳤으며, 명품딸기 생산지로 명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 최초 딸기부문 지리적 표시등록(제70호)과 ISO 9001, ISO 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 담양군 관계자는 “죽향딸기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담양식 농업에 청정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더해 담양 농산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담양지역 1190농가가 358ha에서 딸기를 재배, 생산액 580억 원으로 가락동 도매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매가격 또한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

* 출처 : 광주일보

■ 전남産 농수산물식품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전남도, 중국 식품 유통업체 5곳과 1000만 달러 수출계약 -
- 전남도가 중국 농수산물 식품 유통업체들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베이징 캄핀스키호텔에서 중국 5개 농수산물 식품 유통업체 대표들과 수출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 계약금액은 1000만 달러로, 앞으로 1년 동안 이들 업체를 통해 전남 농수산물을 중국 현지에 보급하게 된다.
- 이날 전남에서 참석한 고흥의 참살이영농조합법인은 유자차 등 5개 품목에 대해 중국 항립상무유한공사와 300만 달러, 청도 삼정화국제무역유한공사와 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참살이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양 업체는 칭다오에 본사를 두고 한국 식품을 수입해 중국 내 170여개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중견 유통업체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남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전남도와 수출협약을 체결한 중국 상해서울무역유한공사와 북경영순락강상무유한공사는 각각 3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상당의 전남산 소금, 조미김 등 9개 품목을 수입해 중국 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 수출협약을 체결한 2개 업체는 '전남 수출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금, 조미김, 액상차 등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날 계약을 체결한 중국 업체 대표들은 "그동안 유자차 등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해 판매해 왔는데 반응이 좋다"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지사는 이날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들에게 "중국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전남도와 생산농가에 수시로 알려주면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계약이 더 많은 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FTA 대응 농림축산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한다

- 전남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9일 착수보고회 -
- 전라남도는 한·뉴질랜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10여 년만에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인의 불안

감이 커졌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재배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체결됨에 따라 국내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실제로 정부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이 차지하는 농업 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은 한·EU 219억 원, 한·미 1천136억 원, 한·중 4천481억 원 등이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체결한 FTA와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난 3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이날 보고회에는 대학교 교수, 연구원, 전라남도의회 FTA대책 특별위원회 노종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일 부위원장, 송형곤·이민준·이준호·정병희·김연일·강정희·이창호·문행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 노종석 위원장 등은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 농업의 현황 및 국내·외 여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시물레이션 모형(KASMO)을 활용한 FTA 영향 분석, 농림축산 분야별·품목별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권역별 맞춤형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 발굴, 전라남도 수출 상위 품목의 경쟁력 분석 등에 대한 세부 용역 내용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 또 현장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품목별 전문 농업인, 시군의 농정부서 담당자, 일반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후 7월 중 중간보고회,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1% 장기 저리자금 확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전국 최고의 안전식품 공급기지 구축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만큼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 대응 T/F’를 구성하고,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과 재춘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 보장 보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 분야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보성군, 강산농원 ‘천년초 발효음료’ 중국수출 상차식 실시

- 보성군 웅치면에 위치한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대표 송새롬)에서는 지난 8일 웅치 사업장에서 ‘천년초 액상차’ 중국수출 첫 상차식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송새롬 대표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산농원의 첫 수출 기념과 향후 수출확대를 염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이번 수출은 중국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춰 HACCP 시설을 이용 엄격한 작업을 거쳐 만든 천년초 발효음료 제품 5,000병을 수출했다.

- 송새롬 대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보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등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월 법인 사무실에서 중국 심양원점생물유한공사(대표 이학)의 원점국제연구개발센터 한국천년초 연구개발기지 지정서를 교부받고 천년초 발효음료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출처 : 매일일보

■ “해외 외식기업 매장 7000개, 진출국 50개국으로 다변화”

- 농식품부, 외식기업 활성화 방안...2020년까지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정보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해외에 문을 연 외식기업 점포수를 7000개로 늘리고, 진출국을 50개국까지 다변화할 방침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련 기관, 외식업계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최근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농식품부는 해외에 점포를 개설한 우리 외식기업들이 언어, 현지 외식시장·문화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경영관리·조리 인력 및 현지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식경영·현지문화·인증제도(할랄 등)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시장 정보를 외식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외식업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외식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정착을 위해 파트너 발굴 및 해외 현지 파트너에 대한 역량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 외식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현지 인허가제도, 상표권 등 법률·금융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나선다. 코트라는 상표권·인허가 등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현재 4개국 9개 도시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 요구사항, 현지제도, 행정절차 등을 소개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우리 외식기업들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한류 등을 활용한 통합형 홍보를 진행하고,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케이푸드페어에 외식기업도 함께 참여시킬 방침이다.
- 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에는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함께 나선다. 우선 농식품부가 외식기업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해 오는 6월 오픈 예정인 외식업 웹사이트 내에 '민관협업 의사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산업부는 해외 현지에서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문두스' 거점무역관 운영을 각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문두스란 해마다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분야 5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해외시장조사·출장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도경록 농식품부 외식진흥과 사무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매장수를 2020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진출국도 현재 40개국에서 50개국 이상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식세계화와 우리 식문화 및 음식·식재료 수출 확대”라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미국산 고급 쇠고기 수입 증가...한우시장 잠식 우려

- 수입 물량 감소 불구 수입액은 FTA 발효전 대비 31% 늘어 -
- 비싼 냉장육 비중 높아진 탓...품질 경쟁 심화 대응 필요 -
- 한·미FTA가 발효된 지 3년차를 맞은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냉장육 수입이 늘어난 것이 한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0만5000톤으로, FTA 발효 전 2011년 수입량인 10만7000톤 대비 1.9%가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늘어, 2011년 5억4500만달러에서 2014년 7억1400만달러로 31.0%가 증가했다. 특히 한·미FTA 발효 2년 차인 2013년 대비 2014년 수입금액 증가율은 40.9%에 달했다.
-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kg당 4.9달러에서 2013년 5.7달러, 2014년에는 6.8달러로, 최근 3년간 수입단가가 약 2달러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호주산은 0.7달러

상승에 그쳤다.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미국산 쇠고기의 지육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냉장육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산 냉장육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14년 10.9%로 3%p 높아졌으며, 물량은 7917톤에서 1만1409톤으로 4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냉동육 비중은 92.1%에서 89.1%로 3%p 낮아졌다.
-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고급화 전략에 따라 등심, 채끝 등 스테이크용 쇠고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등심 수입비중은 2012년 6.3%에서 2014년 9.4%로 3.1%p 높아지고, 물량은 6300톤에서 9826톤으로 6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한·미FTA 발효 이후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 수는 크게 줄고, 쇠고기 자급률도 2013년 50.5%에서 2014년엔 48.2%로 낮아졌다.
- 이에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고급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국내 한우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측은 “일본의 경우 2013년 미국산 쇠고기 냉장육 비율은 43.7%로 한국보다 30%p 높다”면서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미국산 냉장 고급육 비율이 높아지면, 국내 한육우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 전개될 품질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유기농 기반 구축 위해 새끼우렁이 농법 확대

- 전남도, 올해 10만ha까지 늘리기로...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
- 전라남도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을 지난해보다 7천ha 늘어난 10만ha(벼 재배면적 16만 9천ha의 약 6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벼논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친환경 생태환경을 유지해 유기농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무제초제 농법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 새끼우렁이 농법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와 관계 없이 4월 중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0a당 1만 2천 원(보조 90% · 자부담 10%)을 기준으로 1.2kg을 공급 받을 수 있다.
- 올해 농가에 공급하는 새끼우렁이는 원활한 제초 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96개 업체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 벼농사 새끼우렁이 농법은 지난 2009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잡초 방제 효과와 벼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험검증'을 거쳐 피, 물달개비 등 일반 제초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슈퍼잡초까지 99% 이상 제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 새끼우렁이 농법은 씨레질 직후 10a당 1.2kg(1천200마리)을 논에 넣어 주면 제초효과가 높아 노동력 절감은 물론 일반 제초제 대비 비용절감 등 1석 3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새끼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제초 효과와 생산비 절감에 큰 성과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들이 무제초제 농법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농기원, 마늘·대파 냉동 편의제품화로 소비촉진 앞장

- (주)광주식자재마트, 경기지역 두레생협매장에서 판매 개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최경주)이 전남산 마늘과 대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업체와 연구개발한 냉동 편의제품이 광주, 경기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재배 마늘과 대파의 냉동 편의제품화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남의 주산 농산물인 마늘과 대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파는 진도군 (주)진도청정푸드벨리, 마늘은 해남군 소재 한들영농조합법인 지역 가공 생산자업체와 연계하여 연구성으로 도출된 세척 전처리 기술과 포장방법을 적용한 시제품이다.
- 현재 (주)광주식자재마트와 경기 시흥, 원미구 두레생협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 기술원은 냉동 편의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산지가공 생산자업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상품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마늘, 대파 조미채소류는 한번 구입시 비교적 많은 양을 구입하여

적은 양을 여러 번 사용하는 양념 식재료이다.

- 사용할 때마다 매번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절단·다지는 과정이 바쁜 현대생활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로 느껴져 마늘, 대파 소비가 제한되었다.
- 이를 보완으로 산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세척 및 절단 전처리하여 소포장제품으로 냉동저장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화 한 것이다.
- 진도산 대파는 추운 겨울철을 나면서 맛과 향이 깊다. 밭에서 수확해 바로 세척 및 절단 전처리한 후 위생적으로 소포장하여 -40℃ 급냉한 후 냉동제품으로 유통되므로 대파의 맛과 향 뛰어나다.
- 해남산 다진마늘은 1회분씩 사용하기 편리하게 8~10g정도 육각형 모양으로, 여러 회분을 PP 재질에 포장 후 제품화하여 바쁜 소비자들, 특히 도시 직업주부들에게 편의성을 한 층 더 제공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 식품경영연구소 오봉윤연구사는 “한식 고유의 대표적인 조미 향신채소인 마늘, 대파를 소비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냉동 편의제품 연구를 추진하였다며, 이들 작목의 안정적 재배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산지가공 생산자업체와 지속적으로 상품화 연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쌀 생산비절감을 위한“벼 무논점과 재배기술”보급 확대

- 농촌지도 및 농협 추진 시범사업 참여 핵심 농업인 대상 교육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쌀 생산비절감을 위해 새로운

직파기술인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국·도비 지원 농촌지도 시범사업으로 발굴하여 6개소에 설치 운영한다.
- 벼 무논점파기술은 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파종하는 기술이다.
- 일반 재배에 비해 못자리 설치 등 육묘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모내기의 육묘에서 모내기 단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력이 약 35%(63.1시간/1ha → 무논점파 40.8시간)가 절감되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 또한, 기존의 직파기술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 발생, 벼 쓰러짐 등으로 인한 수량감수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쌀 품질과 수량성이 기계모내기과 비슷한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무논점파기계는 농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나 승용이앙기에 파종기만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고 1회 작업 시 8~10줄이 동시에 파종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시범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지난 4월 7일 농촌지도 시범사업과 더불어 농협에서 추진하는 무논점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농업인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관계자 등 90명을 대상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 황수정 기술지원과장은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더불어 생산비 절감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무논점과 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매실 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 방제

- 4월 중순부터 5월 간격 2~3회 방제 -

- 매년 매화꽃이 필무렵 매실 재배농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수확전의 매실을 떨어지게 만드는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매실 수확기에 열매떨어짐의 원인이 되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알 낳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 복숭아씨살이좀벌(*Eurytoma maslovskii*)은 매실의 씨 속에서 애벌레로 겨울철을 보내다가 매화꽃이 지는 4월 상순에 성충이 되어 섭식 및 교미활동을 한 후 4월 중하순에 어린매실의 조직속에 산란하고 죽는다.
- 매실속에 산란된 알은 부화하여 어린 유충이 씨방속으로 들어가 자라면서 부드러운 배유를 먹게 되므로 벌레가 먹은 매실은 부분적으로 함몰되고 갈색으로 변하여 열매가 떨어져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
- 매실이 16mm 정도 자라는 5월 상순에는 매실 씨의 핵막이 딱딱하게 굳으므로 유충이 침투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적기는 성충이 되어 직경 10mm 정

도 자란 매실에 산란을 시작하는 4월 중순부터 5일 간격으로 2~3회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좀벌 방제자재는 유기농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고삼+계피추출물제, 식물추출물+목초액제, 피마자유제가 효과가 높으며, 화학농약으로는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티아메톡삼입상수화제, 팬텀입상수화제가 방제효과가 좋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박사는 전남지역 복숭아씨살이좀벌의 피해과율이 2013년에 69.8%에서 작년에는 34.4%로 낮아졌는데 이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방제지도에 의한 결과이므로 금년에도 방제적기를 잘 숙지하여 실천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전남 6곳 농촌마을축제 지원사업 선정

- 전남도는 ‘해남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 등 6개의 농촌마을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 및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농촌의 지역 자원 등을 소재로 하는 마을단위 축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다.
- 시·도별로 추천받은 76개 축제를 대상으로 농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전남 6개를 비롯해 전국 42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다.
- 선정된 농촌축제 마을에는 2천만~4천만원(지방비 포함)이 차등 지원된다.
- 지원받은 금액은 축제 기획, 운영, 홍보, 전문가 자문 및 축제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축제 개최를 위한 비용 전반에 활용된다.
- ‘해남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와 ‘화순고인돌 세우기 대동 한마당 축제’는 주민들의 협동심과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축제로 선정됐다.
- ‘영광 찰보리 축제’와 ‘나주 명하마을 쪽 축제’, ‘고흥거금도 섬꽃향연 축제’, ‘곡성 봉조마을 알밤축제’는 보리, 쪽, 꽃, 알밤 등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정됐다.

- 특히 ‘해남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는 500년 전통의 용줄다리기를 재현하는 것으로, 소망기와 풍물패를 앞세운 ‘용줄 시가지 행진’ 및 아랫마을 윗마을 두 패로 나눠 하는 용줄다리기 등에 마을 주민 220명 전체가 참여한다. 축제에 쓰이는 용줄은 약 1개월 전부터 주민 50여명이 직접 만드는 등 축제를 통해 단합된 공동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선정된 6개 농촌 마을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마을 축제를 적극 발굴, 지역공동체와 도농교류 활성화 장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14년에는 나주 이슬촌 축제 등 4개 마을 축제에 도시민 9천300여명이 방문,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 약 1억원의 체험 및 농특산물 판매 수입을 올리는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에 기여했다.

*출처 : 남도일보

◆ 전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102억 우선 지원

- 전남도는 14일 “축산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 녹색축산 육성기금 용자사업비 150억원 중 102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자는 지난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축산물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약 농가, 친

환경 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유통업체 등이다.

- 지원 분야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도내 축산농가 32호가 지원받게 된다. 시설자금이 27호 91억원, 운영자금은 5호 11억원이다.
- 특히 올해부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신규 축산농가·가축 전염병 발생 피해농가·투자유치 대상(MOU 체결) 농가 등으로 녹색축산 육성기금 용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이번 용자 지원 선정자 중 15%가 지원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1차 선정 26호 82억원 보다 용자지원액이 20% 늘어났다.
- 용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1%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올해 용자지원액 150억원 중 나머지 48억원은 5월 중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축산 실천 확산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일보

◆ 고길호 군수 "1조7168억 투자 '살맛나는 농촌' 만들터"

-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7168억이 투자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 5개년 계획의 골자는 친환경적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은 물론 관광산업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의 육성이다.
- 신안군의 경지면적은 2만1000ha로 연간 4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업으로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육성 2553억원 ▲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4676억원 ▲국민의 행복한 희망공동체 마을육성 1249억원 ▲해양문화가 살아있는 힐링공간조성 925억원 ▲희망이 넘치는 삶의 터전 육성 1조1973억원 등 5개 시책 132개 사업이다.
- 군은 앞서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목포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목포대 정경화 교수는 “신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군에 산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간부공직자 1일 농부돼 농업인과 소통

-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직자들이 1일 농부가 돼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 수렴 및 소통농정 구현에 나선다.
- 전라남도는 농정을 총괄하는 부서장과 담당사무관급으로 6개 팀(팀당 3~4명)을 구성해 친환경농업, 식품가공, 축산, 산림 등 분야별로 영농체험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1일 농부체험 기간은 10일부터 19일까지 부서별로 하루 동안 시행한다. 10일 농업정책과를 시작으로, 14일 친환경농업과, 15일 식품유통과와 축산과, 산림자원과가 각각 실시한다.
- 주로 고추·상추 등 채소 육묘 파종, 장미 순자르기, 유기과수 퇴비주기, 젖소 사료주기과 축사 소독, 산마늘 채취 등의 농사일을 체험한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파종, 재배, 수확, 판매 등 모든 영농 과정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간부 공직자가 몸소 체크하고 생생한 의견 수렴, 소통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1일 농부체험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농업인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기 위해 27개 농업인 단체를 그룹화해 분기별로 도지사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올해 글로벌 미래농업 전략, 6차산업 육성, 농축산물 수출 확대 등에 대한 농업분야 월례경제대화를 추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농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 이 지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살펴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1일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 이 지사는 이날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올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천농협, 나주 금천농협을 찾아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로컬푸드 직매장은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 농가는 제 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농업 소득이 낮은 영세농이나 고령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협 등 유통업체에서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농가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내 고장에서 난 농산물을 소비하는 애향심이 필요하다.
-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생산자 조직화 등 농가의 역량을 키우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귀농귀촌 인구 늘리기에 힘써줄 것과, 관광과 먹거리를 연계해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여수, 곡성, 구례 등 8개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aT 공모사업에 도내 농협 5개소가 선정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교육·홍보를 위한 국비 9억 8천300만 원을 확보했다.
- 앞으로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판매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직거래장터, 산지체험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남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 농부장터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사세요

- 전라남도는 11일부터 11월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과 시민광장 등 광주·전남의 도시지역 4개소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정기 ‘농부장터’를 운영한다.
- 이번에 개설된 정기 ‘농부장터’는 계절별로 출하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전남 농특산물을 광주·전남권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와 목포 하당 평화광장, 순천 조례동 호수공원,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특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임직원을 위해 혁신도시 내에 장터를 신설했으며,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운영하는 광주·전남 상생 농부장터는 나주·곡성 등 11개 시군이 참여토록 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
- 농부장터에서는 전라남도과 시군이 추천한 신선하고 우수한 250여 품목의 제철 농수특산물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 11일 개장일에는 전남의 대표 브랜드쌀, 건강에 좋은 검정쌀 등 잡곡 혼합세트,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 유기농 딸기, 토마토 등 제철 신선 농산물을 판매한다.
-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지역 농부장터와는 별도로 전국 최대 소비처인 서울지역에서도 4월부터 보라매공원, 광화문 광장 등 5개소에서 정기 농부장터를 여는 등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형태의 농

산물 판촉 마케팅을 공세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이번에 개설되는 농부장터는 경기 침체로 앓아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만큼 도시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업 6차산업 육성 ‘올인’ … 4년간 500억 투입

- 광양시가 지난 2월 ‘농산물 마케팅과’를 신설하는 등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500여억원을 지원해 6차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거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검증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그동안 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유기질비료·상자모·농기계 등 직접적인 지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농업시설 개선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생산위주의 정책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이에 민선 6기는 생산과 연계한 가공·유통·판매·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 광양 매실청 청소년에 지원=우선 ‘마케팅 분야’는 2018년까지 7개 사업에 연차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자단체 중심 조직화와 경영능력 강화 ▲유통 전문·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재정비 및 활성화 ▲맞춤형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한 마인드 교육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와 판촉 ▲온라인 활동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 ‘농식품 가공분야’는 소비자의 구매 유발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열굴인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매실농가(422호)에 매실 발효용기를 보급한다.
- 또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식품가공업체에 위생 발효시설,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피로회복으로 건강 및 학업능력 증진을 위해 광양 매실청 14t을 관내 51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835명에게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 또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농식품 가공산업 참여를 위해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가공 창업 매뉴얼을 확립하는 등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20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남 최대 로컬푸드 매장 5월 개장=‘농산물유통 분야’는 16개 사업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 먼저 광양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선별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신선도 유지 포장재 등을 지원한다.
- 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우수농산물 관리(GAP) 인증면적

(208ha) 확대를 위한 농가교육, 인증신청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등에 투자한다.

- 특히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로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광양원예농협에 전남최대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오는 5월 중 오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 등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확충 등을 통해 광양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지역농협 단위의 소규모 산지 유통조직을 ‘광양시 연합사업단’ 마케팅 조직으로 통합하고, 공동 선별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실을 비롯한 파프리카, 애호박, 양상추, 감, 토마토 등의 지역 대표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시는 ‘6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선도농가육성 시범사업(8농가) ▲환경개선 및 마케팅 등 10개 사업장 조성 ▲산업 수익모델사업 ▲체험농장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 또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음식 연구회(1996년 조직), 차 연구회(2002년 조직), 옷 연구회(1998년 조직), 6차산업 연구회(2015년 조직) 등 지역의 선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 광양시 임영주 부시장은 “도시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까지 연계한 창조적인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에 농업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광주일보

7. 해외 농업정보

◆ 중국, 3월 대두수입량 2월대비 5.4% 증가

중국은 3월에 대두 4.49백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월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입증가 원인으로는 세계 최대 오일시드 수출국이 더 값싼 대두공급국인 남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3월 대두 수입량은 2월중순 중국의 신년연휴 이후에도 증가했었다. 한편 올해 1분기 대두 수입물량은 1.9% 증가한 15.63백만 톤이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낮은 대두가격의 영향으로 1분기 도착분 대두를 대량으로 주문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수요약화에 따라 수입증가분이 약세에 있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첫 두 달간 여러 지역의 사료수요가 부진했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4. 14.(시카고 선물거래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 <http://grain.kreiresearch.com/>

전망치 제공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감소 전망, 이란 핵협상 불확실성 증가, 사우디-이란 간 갈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중국의 수출감소 소식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3)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4	▲1.3%	229	261	284
	옥수수	178	-	178	205	265
	대두	380	▼0.3%	389	501	556
	쌀	400	-	411	425	488
현물	원/달러	1,097	▲0.2%	1,113	1,053	1,085
	달러/유로	1,058	▼0.4%	1,08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51.91	▲0.5%	47.85	92.97	97.94
	Dubai	56.58	▲4.2%	54.69	96.64	105.32

주 1) 밀:US (W, Gulf), 옥수수:US (Y,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4.10(수출가격), '15.4.14(현물), '15.4.1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농협,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러시아 Sovecon에 따르면 2015/16년 겨울곡물의 11-12%가 통사했으며 평균치인 10%이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함.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농업회사의 곡물재고는 19.3백만 톤(전년대비 22%증가)이며 그 중 밀은 6.2백만 톤, 보리는 1.6백만 톤, 옥수수는 10.7백만 톤이라고 함.
- 태국 원유기업은 3월 선적분 미국산 옥수수 20,000톤, 대두 15,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 유기농 선도 농가를 찾아서 — 순천 김태현 유기농명인

- 10여년 유기농 노하우...액비·해충기피제 등 자가제조 -
- 생산비·노동력 절감...1만㎡ 시설서 年 2억 이상 매출 -
- 김태현·선경희씨 부부가 순천시 대대동에 조성돼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애호박의 생육정도를 살펴보고, 애호박에 직접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건강과 웰빙,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전남도는 지금까지 양적 확대 일변도로 추진됐던 친환경농업을 질적 향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은 곧 유기농 농업의 내실화로 이어진다.
- 전남도는 지난 10년간 다져온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믿음 주는 유기농 1번지' 실현을 위해 유기농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기농의 확대와 내실화는 웰빙과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남도가 지정한 채소분야 유기농명인 김태현(52)씨.
- 김 명인은 순천 대대동에 비닐하우스 8동(1만㎡)을 마련해 토마토, 애호박, 오이 등 8종류의 채소류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 지난 2011년 4월 전남도로부터 유기농명인에 지정된 이후 자가제조한 토착미생물과 한방영양제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 건축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 1995년 부인 신경희(48)씨와 함께 부모님이 계시던 순천으로 내려와 농사를 시작했다.
-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기농을 한 것은 아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법 등을 배워 1998년 처음으로 친환경재배를 시작했다. 수차례의 실패 과정을 거쳐 2004년에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 수확량도 적고 판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농법을 도입한데 대해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만 2억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농업의 미래는 유기농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 하지만 당시 소비자들은 친환경재배, 무농약재배, 유기농재배 등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농약 작물을 무공해로 인식해 유기농 작물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갔을 정도로 유기농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 이 때문에 자신이 애써 가꾼 농작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생활협동조합이나 학교 급식소를 찾아다니며 판로를 개척해 나갔다.
- 하지만 현재는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져 공급물량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됐다.
- 수확한 농작물의 60% 정도는 생협 아이쿱에 납품을 하고 있고, 35% 정도는 학교 급식에, 나머지는 주변 식당과 개인적으로 찾아와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 판로 확보는 곧 매출로 이어졌다. 현재 생협 납품으로 1억3000만

원, 급식 8000만원 등 연간 2억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설재배로 인해 연중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어 하루 평균 50~70만원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만의 농사철학을 지켜온데 따른 것이라 이야기한다.
- 김씨는 "농작물은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먹는 사람 몸에도 좋은 것이다"며 "수확량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고자하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유기농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약재 등을 원료로 한 천연액비와 해충기피제 등을 모두 자체 제조해서 사용하는 등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
-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물과 퇴비도 듬뿍듬뿍 주지 않는다.
- 대신 윤작을 통해 땅심 저하를 막았다. 한 곳에 하나의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닌 토마토-애호박-오이-고추 등 시기별로 번갈아가며 작목을 바꾸다 보니 자연적인 병해충 극복뿐만 아니라 땅심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비닐하우스 안에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고 벌레들도 있지만 작물 재배에는 지장이 없다. 시기별로 작물이 바뀌다보니 병해충 피해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토에 해로운 병해충이 다음 작물인 애호박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렇듯 작물 윤작은 인위적인 제초작업과 방제없이도 토양의 질을 높이고 병해충 방제도 자연히 이뤄진다는 것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 작물의 생육에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연구해 제조한 액비와 해충기피제 등으로 충분히 극복됐다.
- 돌려짓기는 계절별 선호 식품이 바뀌는 것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에도 도움이 됐다.
- 유기농 농법은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 현실에도 맞는게 김씨의 설명이다.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나 제초작업 등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재배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일반 농가의 30% 정도밖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도 크다는 것이다.
- 1000m²의 8개동 비닐하우스에 오이, 토마토, 애호박 등 채소류 작목을 재배하면서도 부인과 단 둘이 생산-수확-포장-판매 등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다.
- 최근에는 유기농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30~40대의 귀농자들과 농업인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유기농을 위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 김씨는 "요즘은 교육기관도 많고 정보도 쉽게 습득할 수 있어 귀농과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농사는 배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오랜 기간 몸으로 터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 "영농일지를 쓰더라도 보여주기 위한 일지가 아닌 내가 알기 위한 일지를 써야 한다"며 "농사는 내 사전을 만들어 어느 시기에 어느 약재를 써야 효과가 있는지를 터득해야 작물 재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순천만 천년초 오기조 대표

- 일본 회사 생활 접고 고향서 천년초로 '부농의 꿈' -
-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보람도 느끼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 대학 졸업후 다니던 일본의 웹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한 청년 농사꾼이 틈새 소득작목인 천년초로 부농의 꿈을 일궈 가고 있다.
- 주인공은 전남 순천시 덕월동에서 천년초(손바닥선인장)를 재배하고 있는 5년차 청년 농사꾼 오기조(32)씨다.
- 그는 올해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무농약으로 재배한 천년초 열매만을 직접 가공해 '순천만 천년초' 브랜드로 상품화에 성공했다.
- 어릴 적 부친의 농사일을 거들면서 성장한 그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본 웹디자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돈 안되는 벼농사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도와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다.
- 동네에서 유일한 젊은 농사꾼인 오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사 노하우를 전수 받으면서 젊은 사람답게 '돈되는 작목'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창업아이템을 찾던 중 그가 발견한 것이 천년초였다.
- 천년초는 영하 20℃의 혹한을 견디는 강인한 식물로 몸에 좋은 다양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웰빙시대에 새로운 틈새 소득

작목으로 도입하면 가능성 있어 보였다는 게 오씨의 설명이다.

- 하지만 신출내기 농사꾼에게 천년초는 쉬운 작목이 아니었다.
- 지속적으로 연구를 병행했지만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은 새로운 작목이다보니 무엇보다 판로가 힘들었다. 겨울철 저온저장고에 누수로 저장해둔 천년초 열매가 모두 썩어 전량 폐기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 경험 부족을 인식한 오씨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벤처농업대학의 각종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통해 경영,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천년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 그렇지만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이미 환(丸), 과자, 술, 화장품 등 많은 천년초 가공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고, 고객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 이러한 오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곳이 전남농업기술원의 청년창업 프로젝트였다.
- 그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가공업체는 균일한 가공 원료 조달이 어렵다는데 착안, 본인이 직접 재배해 무농약 인증을 받은 천년초에 화학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100% 천년초 열매즙만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키워드 광고와 지역 축제 참여, 모바일, 블로그, 카페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산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직접 홍보하고 있다.

- 이렇게 해서 순천만 천년초가 소비자에게 알려지면서 직거래가 확대되고 우수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 오씨는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 짓는 것에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면서 "이젠 오히려 직장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는 농사철학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가치를 줄 것이라 믿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권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산업연구담당관은 "이젠 농촌에서도 새로운 작목이나 재배법을 실천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강인한 도전 정신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면서 "농촌에 돌아오는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남도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기간 : 4. 20. ~ 6. 5.
- 가입대상 : 벼 재배면적이 4,000m²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상재해 : 태풍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
 - 병해충 : 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 청약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 벼 1ha 기준 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 신청기간 : 4. 15 ~ 4. 30.(2주간)
- 대 상 :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고 가축운동장을 확보한 농가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증빙자료, 농장사진 등) 시군 제출

◆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절차 ◆

- 지정기한 : 신청일로 부터 50일 이내
- 지정절차 : 축산농가→시·군 경유→도→서류, 현장심사→자체심사→지정
 - 심사평가팀 구성(1개반 5명) : 도 1, 시군 1, 심사위원 위촉 3
- 적합판정 : 심사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환산점수 80점 이상 받은 농장

◆ '15년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4. 13. ~ 4. 27.(2주간)
- 신청자격 : 한우사업단 육종개량농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담 20
 - 금리 2%,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지원내용 : 축사, 사육시설, 퇴비장시설,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현지실사·추천 → 농식품부 선정

◆ '15년 축산계열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4. 13. ~ 5. 1.(3주간)
- 사업대상 : 21개소(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 사 업 비 : 15,919백만원(축산경영종합자금)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등
 - 생산·가공·유통시설 :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 2~4%
 - 계열화사육비 : 융자 50%, 자담 50%, 2년이내 상환, 연 2~4%

주간

전남농업정보 30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